

꿈돌이 호두과자 판매

관광과 교통 거점 확대

대전시는 대전 대표 캐릭터 먹거리인 ‘꿈돌이 호두과자’의 판매망을 주요 관광·교통 거점으로 확대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전시는 올해 1월 대전 대흥동에 ‘꿈돌이 호두과자 3호점’을 개소하며 도심 관광 동선과 연계했고, 이를 기반으로 판매 채널 다각화를 준비해 왔다.

바삭하고 따뜻한 제품 제공을 위해 현장 조리·판매 및 위탁판매 매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우선 ▲감전생태호 수공원 커뮤니티센터(카페) ▲유성북합터미널 매장 등에 현장 조리·판매 형태로 입점을 추진해, 공원 방문객과 터미널 이용객들이 일대에서 파란 꿈돌이 호두과자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역 ‘꿈돌이와 대전여행 홍보관’에 위탁판매 방식으로 입점해,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이 도착과 동시에 대전 대표 캐릭터 먹거리를 기념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꿈돌이 호두과자를 관광 동선과 결합한 대전 대표 디저트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채봉 기자

찾아가는 의료원 첫시동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청양군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의료원’이 지난 7일 운곡면 미량1리 마을회관에서 올해 첫 진료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청양군의 대표적인 특수시책인 ‘찾아가는 의료원’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고령으로 병원 문턱을 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의료진과 첨단 장비를 갖춘 의료 버스가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지난 2023년 첫발을 댄 이 사업은 지난 3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한층 고도화된 시스템을 선보인다.

일회성 진료에 그치지 않고,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개인별 맞춤형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방문 보건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와 긴밀히 연계해, 어르신들이 정든 집과 마을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이는 공공보건의료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마을 순회 진료는 각 읍·면 이장협의회를 통해 신청한 마을 중 선정된 30곳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10곳을 별도로 선정해 재방문 진료를 실시하는 등 연간 총 40회에 걸쳐 촘촘한 의료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충남 “정치적 통합 논의 중단” 촉구해

김태흠 지사 “국회 공청회 배제”로 기자회견 “도민 의견 개진 기회 얻지 못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관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늘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당했다”며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모인 참석 및 발언권을 누차 요구했으나 거부당함에 따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인데,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행정통합은 도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으면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우리의 요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9조 원 수준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타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등 권한도 통합 시에 직접 이관해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행안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국회 행안위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면담을 재요청했다. 김 지사는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외부청사 이전에 대부계약 전 시설물 점검

대전 중구,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부청사 이전을 위한 사전 현장 점검 강화

대전 중구는 9일 ‘나라키움 선화동 빌딩’ 이전에 따른 대부계약 체결에 앞서, 시설물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외부청사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부서 및 전문업체와 합동으로 분야별 시설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부계약 체결 전 필수 절차로, 건축물 전반의 상태와 주요 설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요소 및 행정적 혼선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점검내용은 외부청사 내 건축·설비 시설로, ▲구조물 상태 ▲균열 및 누수 여부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작동상태 여부 ▲안전시설 설치 등 건축물 전반에 대하여 육안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시설물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이전 대상 부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공간 활용 여부 및 시설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였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물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은 대부계약 및 향후 시설 개선·보완 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부청사 이전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구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세부 배치계획을 확정하고, 상반기 내 시설개선을 완료하여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무연고 상태로 사망한 외국인 주민의 장례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따뜻하게 치러졌다고 밝혔다. 이번 장례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사망자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진행됐다.

사망 이후 대사관을 통해 유족을 수 소문한 끝에 배우자가 확인되었으며, 중구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공영장례를 진행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중구 복지만두레협의회(회장 이진우)는 뿌리축제 수익금 중 100만 원을 장례비로 기부했으며, 태평동에서 ‘진국설렁탕’을 운영 중인 류근선 대표(중구복지만두레협의회 부회장 겸 태평2동 복지만두레회장)도 50만 원을 추가로 후원하며 마음을 보냈다. 특히, 대전중부모범운전자회는 고인을 화장장까지 모시는 운구 봉사에 직접 참여해, 타국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존엄을 지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도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채봉 기자

청년의 경험을 열어주는 충청북도

어린이집 실내환경 바이러스 분석 Pathogens에 게재

충청북도가 신입보다 경력을 선호하는 채용 시장의 높은 벽을 허물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행정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형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모집 공고에 총 284명의 청년이 지원해 약 8.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면접을 거쳐 최종 35명의 인턴을 선발했다.

선발된 청년인턴들은 오는 2월 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8월 8일까지 6개월간 도 분청 20개 부서와 직속기관 등에 배치된다. 이들은 단순 업무 보조를 넘어 ▲정책 기획 및 집행 과정 참여 ▲정책 자료 분석 ▲현장 지원 및 협업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하며 공공 업무의 전문성을 체득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도청뿐만 아니라 산하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했다.

현재 과학기술혁신원과 역사문화연구원 등에서 인턴십이 진행 중이며, 향후 신용보증재단, 기업진흥원, 문화재단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채용을 추진

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인턴 사업은 ▲취업 전문 교육 및 분야별 전문가 특강을 제공 ▲도내 우수 기업 현장 탐방을 통한 기업 매칭 기회 제공 ▲인턴십 종료 후 취업 연계 지원 서비스 강화 등 청년들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현장형 청년인턴을 통해 청년들이 행정현장을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갈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소통과 공감으로 청년이 머물고 싶은 충북’을 비전으로, 2026년에는 3,020억 원 규모의 85개 청년정책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형 청년인턴 사업은 청년의 일 경험을 제공하고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신규 사업으로, 청년의 사회 진입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진 기자

시책참여 시 ‘세종 가치 금융’우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9일 시청에서 농협은행, 세종신용보증재단과 ‘세종 가치 금융’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시책에 참여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우대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은 12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총 180억 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 가치 금융은 최대 2억 원의 보증한도로 2년이나 3년동안 1.75~2% 수준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세종시장 포상 수여 기업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업체 ▲착한가격업소 ▲뿌리깊은가게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등록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하며, 세종신용보증재단 앱 ‘보증드림’이나 재단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금융지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책에 동참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2026년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공모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 단체·기관 7곳 내외를 선정하고 사업비로 단체별 최대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4~6세 유아 대상 ‘딩동댕 문화예술학교’ ▲아동·청소년, 성인, 문화취약계층 대상 ‘무작정 문화예술학교’ 등 2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이채봉 기자

소망을 담아,  
새로운 시작을!

설날,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의 꿈도 빛나기를 바랍니다.



강남구의회의원 일동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